

“
**육가공업체들이 8~9월의 하락을
 예상하고 냉동창고의 비축물량을 7월
 이전에 소진시켰다. 따라서 8월
 강보합세는 육가공 공장들의
 비축재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비 -1.5%로서 오히려 감소로 나타났다. 혹서기
 간이라 채식육이 저하 된다고 보아도 두수가 6월
 보다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겨울철
 이라면 여유있게 사료를 입도시킬 수 있는 여지
 도 있겠으나, 하절기에는 짧은 기간에 급여할 사
 료를 입도시키게 되므로 매우 정확한 두수를 참
 작할 수 있는 직접요인이 되는 것이다.

〈표2〉 '92.7월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M/T)

구 분	'92.7월 (A)	'92.6월 (B)	'91.7월 (C)	등락(%)	
				A/B	A/C
갓 난 돼 지	6,818	6,537	6,021	4.3	13.2
젓 먹이 돼 지	89,687	94,292	84,330	▲4.9	6.4
젓 맨 돼 지	11,061	10,392	10,672	6.4	3.6
육 성 돈	142,914	137,978	112,203	3.6	27.4
비육돈전기	8,457	7,412	8,718	14.1	▲3.0
비육돈후기	4,228	3,709	2,689	14.0	57.2
임 신 돈	24,780	27,679	18,333	▲10.5	35.2
포 유 돈	41,926	45,011	37,564	▲6.9	11.6
후 보 종 돈	460	494	322	▲6.9	42.9
종 돈	18,227	20,345	18,473	▲10.4	▲1.3
특 수 사 료	12	10	37	20	▲67.6
계	348,570	353,859	299,362	▲1.5	16.4

정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양축가들은
 지난 6월의 통계수치와 관계부서들의 전망이 흐

림을 듣고 나름대로 생산조절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아진다. 어떻든 또한번의 파동이 오는건 아닌
 가 할 정도로 비관적이었는데, 이번 7월의 사료
 생산량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됨을 다행스
 럽게 생각한다.

성돈시세와 자돈시세의 비율이 25%를 넘으면
 과열된다고 하는데, 현재 성돈 13만6천원, 자돈 3
 만7천원이므로 27% (37/136×100=27.2) 밖에
 안되어서 과열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92년초만 해도 성돈 11만원때에 자돈은 4만4
 천원으로서 자돈대 성돈가격 비율이 40%로 과
 열상태였었다.

연말에나 회복 전망

환경규제의 강화와 축사시설 문제로 농촌의
 구조 개선에 숙제거리가 되어있는 무허가 축사문
 제는 정부에서 그간의 많은 건의를 어느정도 수
 용해갈 전망이니 기대해 보기 바라며, 제도개선
 과 그에대한 혜택을 취한다해도 한계가 있고 경
 쟁국들이 있으므로, 양축가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직영양축이 아니고서는 도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제경쟁시대에 사는 우리의 실정이 아니
 겠는가? 따라서 증산효과도 중요하겠으나 질적
 향상에 주력하여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이전에
 국내 소비자들한테 호평받는 돼지고기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싶다. 추석은
 다가오고 있으나 여기서 시세가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약간의 하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금년내내
 하향으로 가다가 연말에나 회복되지 않을까 생
 각된다. 